

「竹溪志」의 編纂과 版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A Bibliographical Study on Compilation and Edition of “JookGeJi(竹溪志)”

옥 영 정(Ok, Young-Jung)*

◁ 목 차 ▷

- | | |
|-------------------|----------------|
| 1. 緒 言 | 3.1 「竹溪志」의 판본 |
| 2. 「竹溪志」의 편찬과 체제 | 3.2 「竹溪志」의 장서록 |
| 2.1 편찬자와 간행시기 | 4. 結 言 |
| 2.2 체제와 내용 | <참고문헌> |
| 3. 「竹溪志」의 版本과 藏書錄 | |

< 초 록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지인 「竹溪志」를 대상으로 편찬자와 간행시기, 체제, 판본별 특징 등을 알아보고 판본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시도해 본 것이다. 특히 시기와 판본이 다른 「竹溪志」의 내용을 비교하고 補刻의 상황도 살펴보았으며, 간본의 시기를 추정하였다. 아울러 판본의 선후 및 계통을 세우고 기존에 알려진 「竹溪志」 판본의 오류를 지적해냄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要語 : 竹溪志, 竹溪志藏書錄, 書院, 書院誌

< ABSTRACT >

This study is to attempt general analysis about editions of 「JookGeJi」 which is known as the first book which is recorded on auditoriums through examination of printers, printing times, forms and characteristics of editions. Especially, reviewed situations of mending and compared contents of 「JookGeJi」 which were printed in different times and editions. Also presumed printing times. I'd liked to make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gabinja@aks.ac.kr)

접수일: 2005년 9월 8일 최초심사일: 2005년 9월 9일 심사완료일: 2005년 9월 23일

systematic study of editions of 『JookGeJi』 and indicate errors of established work to help relation field research.

Key words : 『JookGeJi』, auditoriums, recorded on auditoriums

K C I

1. 緒言

「竹溪志」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白雲洞書院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여 엮은 것으로 1544년 주세붕이 편찬하였으며 초간이후 몇 차례 간행을 거듭한 책이다. 최초의 서원지로서, 백운동서원의 창건과 배향된 인물의 전기자료로서, 서원의 역사적 고찰이나 지방사립의 연구에 유용한 문헌으로 잘 알려져 있다.

「竹溪志」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우리나라 서원의 성립과 관련된 여러 연구¹⁾에서 최초의 서원지로서 지니는 의의와 함께 백운동서원과 관련하여 성립과 편찬자, 수록내용 중의 역사기록²⁾, 문학사적 특징³⁾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안향의 생애와 사상에 관련된 연구⁴⁾에서 「竹溪志」 편찬의 의의와 안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다룬 바 있으며, 소수서원의 소장 장서에 대한 연구보고에서도⁵⁾ 그 체제와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였다. 특히 藏書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서원의 장서에 대한 소개를 다룬 글을⁶⁾ 필두로 소수서원의 현존 소장 장서에 대한 종합적 보고서가⁷⁾ 작성된 바 있고 최근에는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을 다룬 글에서⁸⁾ 최초의 서원지로 서책의 소장방안 등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竹溪志」 내용에 담겨있는 일부 기록을 바탕으로 교육사학, 역사학, 서지학, 국문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발췌하여 인용하고 있으며 그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개설서나

- 1) 丁淳睦,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慶山: 嶺南大民族文化研究所, 1979).
鄭萬祚, 「朝鮮書院의 成立過程」, 「韓國史論」 8(1981).
李樹煥, 「朝鮮後期 書院研究」(서울: 一朝閣, 2001).
- 2) 尹熙勉, 「白雲洞書院의 設立과 豊基士林」, 「震檀學報」 49(1980).
- 3) 길진숙, 「주세붕의 竹溪志 편찬과 시가관-황준량과의 시가편입논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11(1997. 7), 107-138.
- 4) 김병구, 「회현 안향선생의 생애와 사적」(부산: 경성대학교출판부, 1993).
- 5) 南權熙, 「紹修書院所藏 古書 및 古文書 解題」 「紹修書院所藏資料 調査報告書」(영주 소수서원, 1998).
- 6) 李春熙, 「李朝書院文庫考」(서울: 國會圖書館, 1969).
- 7) 南權熙, 前揭論文.
- 8) 尹熙勉,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歷史學報」 186(2005.6), 1-26.

해제에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특히 「竹溪志」는 서원지의 내용과 더불어 文集, 實記, 世稿 등의 성격을 지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복합적 성격을 지니는 「竹溪志」의 체제를 살펴보면 초기 우리나라 서원지의 성격과 함께 편찬자의 편찬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번역본까지⁹⁾ 간행되었지만 정작 이 책의 판본과 계통에 대한 서지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竹溪志」의 판본은 20세기에 후쇄된 판본으로 판각의 상태가 매우 복잡하여 쉽게 그 간행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기존의 소장처에서 작성한 목록에도 동일간본에 대해서 다른 서지기술내용을 작성한 것도 있으며 같은 판본 중에서도 시기를 달리하여 간행된 것이 현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竹溪志」의 현존본을 바탕으로 편찬자와 간행시기, 체제, 판본별 특징 등을 살펴서 판본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시기와 판본이 다른 「竹溪志」의 내용을 비교하고 補刻의 상황도 살펴 보아서 간본의 시기추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아울러 판본의 선후 및 계통을 세우고 기존에 알려진 「竹溪志」 판본의 오류를 지적해냄으로서 관련분야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竹溪志」의 편찬과 체제

2.1 편찬자와 간행시기

「竹溪志」의 편찬자 周世鵬(1495-1554)은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로 본관은 尙州 자는 景游, 호는 愼齋, 南阜, 武陵道人, 巽翁이며 경상도 漆原에서 출생하였다. 1522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 별시문과 을과로 급제, 승문원권지부

9) 영주시 편, 國譯 「竹溪志」 (영주: 영주시, 2002).

정자로 관직을 시작하였으며 후에 승문원정자로 사가독서에 밝히고, 홍문관의 정자·수찬을 역임하였다. 공조좌랑, 병조좌랑, 강원도도사를 거쳐 사간원헌납을 지냈고 1537년 昆陽郡守로 나갔으며 승문원교리, 禮賓寺正을 거쳐 1541년 풍기 군수가 되었다.¹⁰⁾

白雲洞書院은 그가 군수가 된 후 풍기 지방의 교화를 위하여 향교를 이전하고, 사립 및 그들의 자제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1543년에 건립한 것으로 사묘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지닌 우리나라 서원의 시초를 이루었다. 1545년부터 1548년까지 성균관사성, 홍문관의 응교, 전한, 직제학, 도승지, 호조참판 등 여러 직책을 역임하였으며, 1549년 황해도관찰사가 되어 백운동서원의 예와 같이 해주에 首陽書院을 건립하였다.

「竹溪志」는 그가 白雲洞書院을 설립한 이듬해인 1544년에 편찬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 작성된 「竹溪志」의 序文에서 晦軒祠, 白雲洞書院의 건립취지와 함께 이 책의 편찬경위를 밝히고 있다. 그는 서원 건립의 동기로 教化를 내세웠으며 교화는 반드시 尊賢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祠廟와 儒生藏修를 위한 서원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¹¹⁾ 「竹溪志」는 이러한 백운동서원의 설립취지를 알리기 위하여 편찬된 것이었으며 안씨일가의 행록과 주세붕의 시가, 주자가 쓴 선현들의 묘원기, 당실기 등을 수록하고 별록으로 爲學, 立教, 關邪 등으로 조목을 나누어 「論語」, 「孟子」, 「禮記」 등의 경서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뽑아 정리하였다.

주세붕은 안향을 기려 사묘와 서원을 세운 것이 모두 주자를 숭앙하며 그의 뜻을 따르고자 한데서 실행된 일임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竹溪志」를 편찬할 때 주자의 글을 편입시키는 편찬양상을 보이는데, 「竹溪志」의 서문에서도 존현, 학전, 장서, 잡록 등은 반드시 주자가 지은 것을 편수에 표출하여 주자를 경모한 공의 뜻을 나타낸다고¹²⁾ 밝히고 있다.

그는 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적을 기증받거나 구입하고 書院田도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남: 동연구원, 1992).

11) 「竹溪志」, 竹溪志序.

12) 「竹溪志」, 竹溪志序.

마련하였다. 백운동서원이 설립초기에 일부 사람과 안향의 후손들을 제외하고 지역사람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는데 1546년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한 安琰의 노력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반을 제대로 갖추게 되었다. 安琰은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데 노력하였으며 斯文立義를 마련하여 서원의 인재양성을 위한 틀을 마련하였다.¹³⁾

「竹溪志」의 편찬시기는 1544년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주세붕의 「竹溪志」序文, 학전록과 장서록의 작성시기 등과도 일치한다. 편찬이후에 곧바로 간행하였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명확한 간행기록이 없어 확정하기가 어려운데, 李滉이 「竹溪志」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주세붕이 「竹溪志」를 편찬하여 완성되자 곧 간행하였다.”는 기록이¹⁴⁾ 있어서 초간의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1568년에 인출된¹⁵⁾ 「攷事撮要」에 풍기 소장책판으로 杜詩, 治家節要와 함께 「竹溪志」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초간본 간행시기의 하한선을 정해 볼 수 있다. 아울러 「攷事撮要」는 1554년에 처음 편찬되었고 1568년경 을해자로 간행할 때 새로운 책판의 추가가 거의 없었으므로¹⁶⁾ 「攷事撮要」의 처음 편찬시기인 1554년 이전까지도 그 간행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초기 간본으로 추정되는 영남대 도서관 소장 「竹溪志」 1책에는 “嘉靖三十九年月日…”의 藏書記가 筆寫되어 있어서 1560년 이전의 간본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竹溪志」의 책판은 이후로 「攷事撮要」에 기록되어 1576년 1585년 간행의 「攷事撮要」와 18세기에 기록한 서책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년도를 확인할 수 없는 19세기이후의 책판목록에는 풍기가 아닌 순흥의 책판으로 등장한다. 현재 소수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책판이 이 책판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전하는 목판본과 비교해 볼 때 완전하지는 않고 일부 유실되어서 전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13) 尹熙勉, 前揭論文(1980).

14) 李滉, 「退溪先生文集」 권12, “與朴澤之,” 『韓國文集叢刊』 29. p.338. “…往年, 商山周景遊在豐邑 撰竹溪志 甫成即入梓…”

15) 金致雨, “朝鮮朝 前期 地方刊本の 研究: 冊板目錄 소재의 傳存本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학원, 1999.6.), 5-7.

16) 金致雨, 上揭論文, p.8.

있다.¹⁷⁾

현재 전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6권 3책본은 판각의 상태가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지러진 장이 많으며 각 장마다 판의 크기, 판심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목활자본 「竹溪志」의 내용 중에 안향의 20대손 안명렬이 1884년에 작성한 跋文에 의하면 癸亥年(1863년으로 추정)에 安時中과 安鼎鎭이 원본 3책을 인행하였다는 기록이¹⁸⁾ 있으므로 20세기에 간행되기 전 19세기에도 1차레이상의 인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8년에 6권 3책본을 인출하면서 작성한 안승규의 발문을 살펴보면

...책으로 간행하여 서원에 소장한 지가 이미 400년이 되었다. 내가 후생으로서 분수에 넘치게 경영의 책임을 맡아 사당과 서원을 중수하고 유적을 정돈하던 중 비로소 竹溪志의 판각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먼지 속에서 종이 슬어 훼손된 것이 많았다. 또한 세상에 전해지는 원본을 대략 본 것이 적지 않은데, 만일 지금 인쇄하지 않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마모가 더욱 심해져 읽을 수 없게 될 지경이었다. 다만 일은 거창하고 힘을 미약해 뜻을 품었으나 겨를이 없던 중, 이해 3월 봄에 족제 東濬씨가 선조를 추모하는 일에 독실하여 혼자서 성력을 기울려 공인을 모아 일을 시작했다. 자획이 벗겨지고 떨어져 나간 것과 결실된 판목은 옛날 글을 참조해서 새롭게 보충했다. 편찬과 인쇄 감독은 족숙 龍鎬 씨 및 족질 大根, 秉翊 군이 맡아 힘썼다. 2개월 걸려 일을 마쳤다....¹⁹⁾

라고 하여 함께 참여했던 인물과 보각사실, 인쇄시 소요시간등을 적고 있다. 현재 전해지는 6권 3책본은 대부분 이 때 인출된 후쇄본이며 군데군데 보각판이 새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판식을 달리하고 있는 내용 중에 소수서원의 사액을 받고 난 이후의 기록도 있는데(白雲洞紹修書院記) 이는 초간이후

17) 南權熙, 前揭論文.

18) 安昞烈, 竹溪志跋, “...夫去癸亥宗人時中甫與鼎鎭甫印行原本三冊矣...”

19) 安承奎, 竹溪志跋 “...繡諸梓而藏之院 四百年于茲 顧予晚生猥忝句管之任 方營重修祠院 整頓遺蹟 而始得審竹溪志刻板 間多塵蠹斷爛 且原本之傳于世者不少 概見若不及今圖所以重印而世之 恐愈久漫漶至不可讀 但事鉅力綿 齎志未遑矣 是歲暮春 族弟東濬甫篤於追先 獨辦誠力募工着手 若字畫之剝泐與夫刻板之缺失者 參之舊文而補新之 其編纂監印董役始終效勤 族叔龍鎬氏及族侄大根秉翊君也 二易朔而功告訖...”

추가로 판각하여 수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2 체제와 내용

「竹溪志」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편찬된 書院誌로 알려져 있지만, 그 체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개설서나 해제에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않다. 이는 서원지라는 개념이 이 책에 의해서 처음 생긴 것이고 이후에 간행되는 각종 서원지나 비슷한 유형의 서책 편찬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문헌임을 감안한다면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그 내용 중에는 서원지의 일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文集이나, 實記, 世稿 등에 쓰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등 그 성격이 복합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므로 이를 분석해 본다면 「竹溪志」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장에서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는 「竹溪志」의 체제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간략하게나마 초기 우리나라 서원지의 성격과 함께 편찬자의 편찬의도를 파악하는데 1차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한다.

「竹溪志」의 체제는 우선 「竹溪志」 서문에 나타난 편찬자의 글에서 대략 파악할 수 있는데, 크게 구분하여 竹溪安氏行錄, 尊賢錄, 學田錄, 藏書錄으로 나누고 있다. 죽계안씨행록은 안향의 후손인 安碩, 安軸, 安輔, 安輯 등에 대한 기록을 모은 것이고, 존현록은 주희의 백록동서원에 관한 글과 주돈이 정호, 정이 등의 인물이 쓴 祠記 등으로 이루어졌다. 학전록, 장서록은 안향이 주희의 뜻을 흠모하는 뜻을 드러내고자 주희의 글을 앞에 싣고 백운동서원의 학전과 장서상황을 적었다고²⁰⁾ 하였다.

「竹溪志」는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 현전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6권 3책본과 3권 1책본, 5권 1책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6권 3책본이 초기간본의 형태를 띠고 있고, 현전하는 자료도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6권 3책본을 중심으로 그 체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0) 「竹溪志」, 竹溪志序.

6권 3책의 첫부분은 목록없이 “竹溪志序”, “白雲洞文成公廟記”가 바로 시작되는데 본문의 각권마다 별도의 제목, 즉 安氏行錄, 尊賢錄, 學田錄, 藏書錄, 雜錄, 別錄을 부여하고 있다. 安氏行錄, 尊賢錄, 雜錄에는 본문이 끝난 뒤에 각각 安氏行錄後, 尊賢錄後, 雜錄後를 싣고 있다.

권1의 竹溪志行錄은 文成公傳, 墓誌銘, 文貞公傳, 送謹齋安大夫赴尙州牧序, 送安修撰序, 賀竹溪安氏三子登科詩序, 送楊廣道按廉使安侍御詩序, 順興鳳棲樓重營記, 襄陽新學記, 詩, 竹溪別曲 등으로 백운동서원에 제향되어 있는 安珦, 安軸, 安輔 등의 행적에 관한 기록과 安軸이 지은 “竹溪別曲”을 비롯한 여러 시문들이 실려 있다.

이어서 나오는 竹溪志行錄後에는 白雲洞文成公廟開墓祭后土文과 안씨가에서 주고받은 편지, 안향의 遺骸을 봉안하는 발문과 각종 제문, 주세붕 자신이 지은 道東曲, 六賢歌, 儼然曲, 君子歌 등을 비롯한 竹溪辭三章, 學而歌, 問津歌, 浴沂歌, 春風歌, 至善歌, 孝悌歌, 動察吟, 靜養吟, 太平曲五章, 唐虞歌 등의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竹溪志의 편찬과 관련하여 황준량과 주고받은 편지도 있으며 安文成公春秋大享圖, 依圖祭用雜物式, 祭式에 이어서 李滉이 풍기군수시절인 1549년에 관찰사 沈通源에게 白雲洞書院에 편액과 田土를 하사할 것을 주청하도록 청한 上監司沈公書가 있다. 마지막에는 1550년 申光漢이 周世鵬이 서원을 창건하고 안향을 제향하게 된 경위와 사액을 받은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白雲洞紹修書院記²¹⁾를 싣고 있다. 한편 초기 간본으로 6권 3책이 모두 전해지고 있는 고려대 만송문고본에는 上監司沈公書, 白雲洞紹修書院記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초기 간행이후 추가로 수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권2는 尊賢錄으로 周濂溪, 程頤, 程顥, 張敬夫 등을 위해 주희가 지은 여러 祠記와 景行堂記, 江州重建濂溪先生書堂記, 袁州州學三先生祠記, 壯節亭記, 冰玉堂記 등의 글이 실려있다. 그리고 尊賢錄後에는 考亭書院上樑文, 九先生祠上梁文, 同文書院上梁文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서원들의 상량문과 각종 기록 등이 실려 있다.

21) 이에 의하면 당시 대체학 신광한이 명종의 명을 받고 賜額한 이름을 紹修와 興慶의 두 명칭으로 올렸고 이중에 紹修로 결정하고 白雲洞紹修書院으로 命名하였음을 알 수 있다.

권3과 권4는 學田錄과 藏書錄인데 학전록은 建寧府崇安縣學田記, 衡州石鼓書院記, 玉山劉氏義學記 등 중국 서원의 學田 에 관한 내용을 먼저 기록하고 이어 白雲洞書院의 學田과 그 내용을 실었다. 장서록은 학전록과 마찬가지로 徽州婺源縣學藏書閣記, 建寧府建陽縣學藏書記, 刊四經成告先聖文, 同安縣學經史閣上梁文, 跋白鹿洞所藏藏漢書 등 중국 서원의 藏書閣과 藏書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적고 이어 별도로 白雲洞書院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적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白雲洞書院藏書는 최초의 서원장서목록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권5는 雜錄으로 朱喜가 창건한 白鹿洞書院에 관한 牒, 狀, 成告先聖文 등의 기록들과 주희가 지은 白鹿洞賦 등을 실고 있으며 敬齋箴, 自警云과 같은 경계하는 글, 여러 존현의 畫象贊, 詩 등을 적고 있다. 또 주희의 “學求聖賢鳶飛魚躍”의 여덟 글자를 모사하고 그에 대한 周世鵬 자신의 평을 기록하였다.

雜錄後에는 주희가 지은 白鹿洞賦에 차운하여 지은 白雲洞次朱文公白鹿洞賦와 함께 풍기지역의 고적, 풍속을 담은 豐基俗尙記, 豐基古跡記, 豐基移建學校記도 실고 있다.

권6은 別錄으로 「論語」, 「孟子」, 「禮記」 등의 경서에서 爲學, 立教, 關邪 등으로 조목을 나누어 관련된 내용을 뽑아 정리하였다.

편찬자가 서문에서 밝힌 대로 行錄을 앞부분에 두고 기타 존현, 학전, 장서, 잡록 등은 반드시 주자가 지은 것을 편수에 표출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竹溪志」 편집과 관련하여 黃俊良(1517-1563)과 주고받은 편지에²²⁾ 보다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 황준량은 주세봉에게

…지난번에 또 「竹溪志」등 편을 보았는데, 行錄은 여러 安氏들의 사적이었고, 여러 篇은 주자의 글로서 역시 모두 불 만하고 범판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중략)… 이미, “회현의 마음을 알려면 마땅히 회암의 글을 보아야 한다.” 하였다면, 이 한 마디 말로 충분합니다. 회현의 마음을 탐구해 보려면 마땅히 별도로 회암의 글을 취해 보면 그 傳承이 그 안에 있음을 밝히기에 충분한데, 허필 회암을 竹溪志에다 줄여서 무리하게 하나로 만들어야만 했습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竹溪志에서는 여러 안씨의 事蹟을 주로 하고, 學田, 藏書, 歌曲, 俗尙 같은 것과 무릇 서원에 관계되는 일들은 雜錄으로 정리하여

22) 「竹溪志」卷1, 附黃學正俊良書.

그 뒤에다 붙이고, 그리고 다시 「朱子大全」중의 名言을 뽑아내어 朱書라 표제하고 간행하여 서원에서 배우는 이들이 회헌을 탐구하는 바탕으로 삼는다면 명분이 바르게 되고 말이 곧아서 조리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책은 무리하게 合編했다는 의문을 받지 않을 것이며, 道는 폐단 없이 전승이 있게 되어, 祖述하며 옛것을 좋아하는 道에 아마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중략)… 그리고 文貞(안축)의 珠履曲, 高陽曲은 반드시 한때 戲謔에서 나온 것으로, 후세에 詠誦할 만한 것은 아닌데, 선생은 이미 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聖賢의 格言을 翻案하여 詩歌를 지었는데, …조예가 깊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은 비록 옛것을 번안했다 하나, 자신이 지었다는 사실을 벗어날 수가 없다면, 역시 이 竹溪志에 함께 편입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竹溪曲을 삭제해서, 別錄 및 儼然歌 등의 시가와 함께 일단 그만두었다가 다른 사람의 취함을 기다렸으면 합니다.(후략)

라고 하여 주자의 글은 별도로 두는 문제, 雜錄에 學田, 藏書, 歌曲의 일부, 俗尙 등을 포함시키는 문제, 죽계곡, 한글가사 등은 삭제하는 문제 등을 거론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세붕은 의도하는 본래 뜻이 있었음을 밝히고 회헌의 글을 넣은 이유, 안씨행록과 함께 주자의 글을 함께 넣은 이유, 여러 편의 시가를 넣은 이유 등을 일일이 설명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자의 내용을 위주로 하고 이를 편수에 넣었음을 밝히고 있다.²³⁾ 특히 시가와 한글 가사에 대해서는 성현의 格言을 번안한 것으로 몸을 닦고 풍속을 교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것임을 강조하였다.²⁴⁾ 이와 같은 내용은 「竹溪志」 편찬과정에서 편찬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지 편찬과정을 제대로 보여준다. 즉 핵심적인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위주로 편집되었으며 개인문집, 실기, 세고에 포함할 만한 성격을 지니는 글들이 대거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한편 3권 1책본은 목활자본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2종류가 알려지고 있고, 목판본으로 된 5권 1책본도 전해지고 있는데, 3종류 모두 6권 3책의 내용에서

23) 「竹溪志」 卷1, 答黃仲舉書.

24) 길진숙은 황준량과 주세붕의 시가편입논쟁을 다룬 글에서 주세붕의 국문시가가 노래의 교화적 역할을 중시하고 시가향유의 공격지향에 관심을 보인 것이며 내밀하게 국문시가를 향유하던 황준량, 이황 계열과는 확실히 변별되는 모습을 가졌다고 하였다. (길진숙, “주세붕의 竹溪志 편찬과 시가관-황준량과의 시가편입논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1(1997.7), 107-138.)

발췌하여 체제를 바꾸고 간행한 형태이다.

3권 1책본의 첫 부분에는 주세붕의 서문과 목록이 있다. 권 1은 白雲洞文成公廟記, 竹溪安氏行錄의 일부, 順興鳳棲樓重營記, 豐順興俗尙記, 豐基古蹟記, 권2는 尊賢錄의 일부, 學田錄의 전체, 藏書錄의 일부를 싣고 있으며, 권3은 別錄으로 6권 3책본의 잡록에 수록된 주희의 白鹿洞賦, 白雲洞敬次朱文公白鹿洞賦, 晦菴八大字 등과 주세붕의 竹溪志跋이 실려 있다. 마지막에 후손이 작성한 발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간행에 참여한 有司의 명단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3종류가 그 체제는 거의 같지만 몇 가지 내용에 변동이 있다.(표 1 참조)

「竹溪志」를 안향의 實記인 「晦軒先生實記」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일치하는 내용이 대부분 竹溪志行錄後에 포함된 것인데, 이는 白雲洞敬次朱文公白鹿洞賦 외에는 3권 1책본에 싣지 않은 내용이어서 3권 1책본이 「晦軒先生實記」의 부록으로 작성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安昞烈이 1884년에 작성한 죽계지 跋文에 癸亥年에 安時中和 安鼎鎭이 원본 3책을 인행하였고 그 때 회헌실기를 간출하면서 죽계지 1책을 실기다음에 부록한다고²⁵⁾ 밝히고 있어서 이 책이 「晦軒先生實記」의 부록으로 1884년에 간행된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각 서책의 종류별로 그 체제와 내용을 비교 정리해 보면 <표 1>²⁶⁾과 같다.

<표 1> 죽계지의 편집체제 비교표

| 목판본 6권 3책 | 목활자본 3권1책(1884) | 목활자본 3권1책(1900) | 목판본 3권 1책(1909) 앞 | 회헌선생실기 |
|--|--|--|--------------------------|--------|
| 竹溪志序, 白雲洞文成公廟記 竹溪安氏行錄卷之一 文成公傳, 墓誌銘, 文貞公傳 送謹齋安大夫赴尙州牧序 送安修撰序 賀竹溪安氏三子登科詩序 送楊廣道按廉使安侍御詩序 順興鳳棲樓重營記 | 目錄 竹溪志序, 白雲洞文成公廟記 竹溪安氏行錄 文成公傳, 文貞公傳 | 目錄 竹溪志序, 白雲洞文成公廟記 竹溪安氏行錄 文成公傳, 文貞公傳 | 目錄 竹溪志序 文成公傳, 文貞公傳 | 竹溪志序 |

25) 安昞烈, 竹溪志跋, “...今者晦軒實記之刊出也, 宗人亨淳甫余舍伯刪輯爲一冊附于實記後謂余識之不敢辭書 歲甲申仲夏晦軒先生二十代孫昞烈謹識.”

26) <표 1>에서 3권 1책본의 내용은 실제순서와 약간 다르다. 6권 3책본의 체제와 비교하기 위하여 같은 내용의 제목을 6권 3책본과 나란히 배열하였다

「竹溪志」의 編纂과 版本에 관한 書誌의 研究

| | | | | |
|--|--|---|---|--|
| <p>襄陽新學記, 詩, 竹溪別曲</p> <p>竹溪志行錄後 白雲洞文成公廟開基祭后土文 附安注書批書, 與安敬使遺書 附安承旨致答書, 與安挺然書 奉安文成公遺像跋, 奉安文成公祭文 竹溪辭三章, 祭告文成廟從祀文貞文敬文 奉安文貞公祭文, 奉安文敬公祭文 道東曲九章, 六賢歌, 儼然曲七章 君子歌, 學而歌, 問津歌, 浴沂歌 春風歌, 至善歌, 孝悌歌, 勸學吟 靜養吟, 太平曲五章, 唐虞歌 附黃學正俊良書, 答黃仲學書 安文成公春秋大享圖 依圖祭用雜物式, 祭式 上監司沈公書 白雲洞紹修書院記</p> <p>竹溪志尊賢錄卷之二 徽州婺源縣學三先生祠 紹州州學謙溪先生祠記 德安府應城縣上蔡謝先生祠記 黃州州學二程先生祠記 建寧府學游御史祠記 建寧府崇安縣學二公祠記 建寧府學明道先生祠記 景行堂記, 江州重建謙溪先生書堂記 袁州州學三先生祠記 壯節亭記, 水玉堂記 祭屯田劉居士墓文, 名宦堂記, 克齋記</p> <p>竹溪志尊賢錄後, 考亭書院上梁文 九先生祠上梁文, 同文書院上梁文 西澗書院新築文, 重創忠節祠堂上梁文</p> <p>竹溪志學田錄卷之三 建寧府崇安縣學田記 衡州石鼓書院記, 玉山劉氏義學記 甲辰 月 日白雲洞書院</p> <p>竹溪志藏書錄卷之四 徽州婺源縣學藏書閣記 建寧府建陽縣學藏書記 刊四經成告先聖文 同安縣學經史閣上梁文 跋白雲洞所藏藏漢書 白雲洞書院藏書</p> <p>竹溪志雜錄卷之五 白鹿洞狀, 新修白鹿洞書院狀 白鹿洞成告先聖文 白鹿洞成告先師文 跋金龜陸主簿白鹿洞書堂講義後 白鹿書堂策問, 白鹿洞賦, 答白鹿長貳 講座銘, 四齋銘, 又四齋銘, 學古齋銘 尊德性齋銘, 敬恕齋銘, 求放心齋銘 剡屏山復齋蒙齋二琴銘, 黃子厚琴銘 紫陽琴銘, 窓銘, 高照銘</p> | <p>紹州州學謙溪先生祠記</p> <p>黃州州學二程先生祠記</p> <p>壯節亭記</p> <p>考亭書院上梁文</p> <p>竹溪志學田錄 建寧府崇安縣學田記 玉山劉氏義學記 順興白雲洞紹修書院學田記</p> <p>徽州婺源縣學藏書閣記</p> <p>刊四經成告先聖文</p> <p>新修白鹿洞書院狀 白鹿洞成告先聖文</p> <p>白鹿洞賦</p> | <p>竹溪志尊賢錄卷之二 徽州婺源縣學三先生祠 紹州州學謙溪先生祠記 德安府應城縣上蔡謝先生祠記 黃州州學二程先生祠記</p> <p>建寧府崇安縣學二公祠記</p> <p>壯節亭記</p> <p>考亭書院上梁文</p> <p>竹溪志學田錄 建寧府崇安縣學田記 玉山劉氏義學記 順興安文成公學田記</p> <p>徽州婺源縣學藏書閣記</p> <p>刊四經成告先聖文</p> <p>跋白雲洞所藏藏漢書 白雲洞書院藏書</p> <p>竹溪志別錄卷三 新修白鹿洞書院狀 白鹿洞成告先聖文 白鹿洞成告先師文</p> <p>白鹿洞賦 講座銘, 四齋銘</p> | <p>順興厚棟重營記</p> <p>黃鶴溪與周慎齋書 周慎齋答黃鶴溪書</p> <p>紹州州學謙溪先生祠記</p> <p>黃州州學二程先生祠記</p> <p>壯節亭記</p> <p>考亭書院上梁文</p> <p>建寧府崇安縣學田記 玉山劉氏義學記 白雲洞書院學田記</p> <p>徽州婺源縣學藏書閣記</p> <p>刊四經成告先聖文</p> <p>新修白鹿洞書院狀 白鹿洞成告先聖文</p> <p>白鹿洞賦</p> | <p>附安注書批書 與安敬使遺書 附安承旨致答書 奉安文成公遺像跋 竹溪辭三章 道東曲九章</p> <p>附黃學正俊良書, 答黃仲學書 安文成公春秋大享圖, 上監司沈公書 白雲洞文成公廟記, 白雲洞紹修書院記</p> |
|--|--|---|---|--|

| | | | | |
|--|---|--|--|-------------|
| 藏書閣書影字號銘, 敬齋錄, 自警云 調息錄, 六先生畫象贊, 張敬夫畫象贊 呂伯恭畫象贊, 陳明仲畫象贊 程正思畫象贊, 書畫象自警 和子德白鹿之句, 次下筆書落或白鹿佳句 白鹿講會次下文韻, 次韻四十八次白鹿之作, 奉酬敬夫 齋居感興二十首, 詠閑窓, 克己 觀書有感, 春日, 啓蒙, 白鹿洞書院揭示 滄州精舍論學者, 又論學者, 小學題辭 觀此可以見聖賢家規之道 晦庵八大字 竹溪志雜錄後, 白雲洞次朱文公白鹿洞賦 豐基俗尚記, 豐基古跡記 豐基移理學校記 竹溪志別錄卷之六 爲學, 入教, 關邪 竹溪志重刊跋(安東奎) 跋(安東濬) | 晦庵八大字 白雲洞次朱文公白鹿洞賦 豐順興俗尚記, 豐基古跡記 跋(周世顯) 跋(安炳烈) | 自警云 六先生畫象贊 書畫象自警 晦庵八大字 白雲洞次朱文公白鹿洞賦 豐順興俗尚記, 豐順興古跡記 跋(周世顯) | 晦庵八大字 白雲洞次朱文公白鹿洞賦 豐基俗尚記, 豐基古跡記 豐基移理學校記 跋(安炳烈) 尊賢錄跋(安鍾冕)1909 | 白雲洞次朱文公白鹿洞賦 |
|--|---|--|--|-------------|

또한 주세붕의 개인문집인 「武陵雜稿」에도 「竹溪志」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비교적 많이 있는데, 6권 3책본에 실린 권1 竹溪志行錄後의 내용 중 書簡, 歌辭, 권5의 竹溪志雜錄後와 권6 竹溪志別錄의 전체내용 등 주로 주세붕 자신이 저작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3권 1책본의 내용은 6권 3책본의 안씨행록, 학전록, 장서록, 존현록의 일부 등을 주요소로 하여 가려 뽑은 것임을 알 수 있고 「晦軒先生實記」의 부록으로 쓰이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보인다.²⁷⁾

3. 「竹溪志」의 판본과 장서록

3.1 「竹溪志」의 판본

「竹溪志」의 판본은 현전본으로 볼 때 크게 구분하여 목판본, 목활자본, 필사

27) 실제로 7권 3책의 「晦軒先生實記」가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4권 2책이 “實記” 나머지 3권 1책이 「竹溪誌」이다. 다른 주요기관의 목록에서는 동일한 간본으로 여겨지는 4권 2책의 「晦軒先生實記」와 3권 1책의 「竹溪誌」를 따로 목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본으로 나뉘어 진다. 각 소장처마다 다양한 서지기술을 하고 있어서 동종의 판본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은 편이지만 실사를 거쳐서 비교해 본 결과 그 인출의 시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대략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竹溪誌」 현전본의 판본별 현황

| 版本 | 書名 | 冊數 | 印出時期 | 邊欄, 半匡 | 行字數 | 版心 | 所藏處 |
|------|--------------|----------------|-----------------------|-------------------|--------|----------------------------------|--------------------------------------|
| 木板本 | 竹溪誌 | 1冊 (零本) | 16C | 四周雙邊 24×17.2 | 10行 2ㄷ |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영남대, 규장각(후쇄) |
| | | 6卷3冊 | | 四周雙邊 22.5×18 | | | 고려대 |
| | 竹溪誌 | 6卷3冊 | 20C (後刷) 1968 跋 | 四周雙邊 23.4×17 | 10行 2ㄷ | 一部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一部上下內向二葉花紋 | 장서각, 고려대, 영남대, 성균관대, 규장각, 경북대, |
| | 竹溪誌 (尊賢錄) | 5卷1冊 (3卷1冊) | 1909 跋 | 四周雙邊 22.1×17.0 | 10行 2ㄷ | 上下內向二葉花紋 | 성균관대, 규장각, 국립도, 경북대, 영남대 |
| 木活字本 | 竹溪誌 | 3卷1冊 | 1884 跋 | 四周雙邊 21.3×15.4 | 10行 2ㄷ | 上下內向二葉花紋 | 장서각, 국립도, 규장각, 국회도, 고려대 |
| | 竹溪誌 | 3卷1冊 | 1900 년경 | 四周單邊 | 10行 2ㄷ | 上下內向三葉花紋 | 장서각, 영남대, 성균관대 |
| 筆寫本 | 竹溪誌 | 1冊 | | | | | 고려대, 규장각 |

목판본은 6권 3책본과 5권 1책본이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6권 3책본은 고려대 만송문고의 3책, 영남대 도서관의 1책, 서울대 규장각의 1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후쇄본으로 판각의 상태가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지러진 장이 많으며 각 장마다 판의 크기, 판심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여러 차례의 보각판이 들어간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판심을 달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판본을 통해서 보각의 횟수와 그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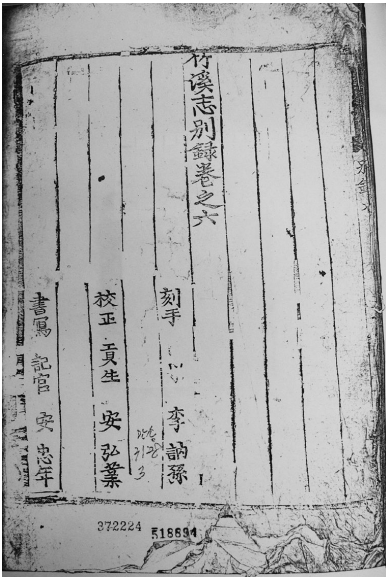
<표 3>은 6권 3책본의 후쇄본을 대상으로 張마다 나타나는 판심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표시해 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판심이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의 형식을 보이는 16세기 판각본을 바탕으로 17세기양식인 上下內向花紋魚尾, 18세기 이후의 양식인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등 시대 구분이 비교적 확실한 어미양식을 지니는 판이 보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세기에 이

책을 후쇄하고 중간하면서 얼마만큼의 판각이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판심분석에 의한 간행시기 추정으로 살펴볼 때 최초 간행이후로 최소한 3차례이상의 보각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⁸⁾

6권 3책본은 16세기 인출본이 영남대, 고려대 만송문고 등에 남아있다. 특히 영남대 소장의 16세기 인출본은 비록 권2,3,4의 1책만 남아 있는 영본이지만 권두에 1560년의 장서기가 있어서 인출시기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고려대 만송문고본은 영남대본과 동일한 시기에 인출된 간본이며 완질로 남아 있어서 16세기에 간행된 초기 간본의 전체적 구성을²⁹⁾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권말에는 “刻手 李訥孫”, “校正 安弘業”, “書寫 安忠年”의 내용이 판각되어 있어 간행에 참여한 인물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참여인물 중에 교정자 안홍업³⁰⁾은 1510-1561년에 생존했던 인물로 확인되며, 이 또한 인출시기를 추정하는데 근거가 된다. 규장각본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권2-4의 1책만 남아있는 일사문고본(一簣古 181.11-J869)이 있다. 藏書錄의 마지막 장이 낙장이고 「麗語編錄」이후 서책의 서명과 책수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17세기 이후에 인쇄된 후쇄본으로 여겨진다.

그 외의 6권 3책본은 대부분 근래에 인출된 후쇄본으로 20세기(1968년)에 작성된 안씨가 후손(安承奎)의 발문이 권말에 붙어 있다.

- 28) 또한 6권 3책본의 내용이 16세기에 모두 간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卷1 行錄後의 한글가사가 있는 부분은 모두 17세기의 판심 형태를 보이고 권1의 上書는 모두 上下內向黑魚尾의 판심이므로 이들은 한꺼번에 증보의 형태로 보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9) 20세기 인출의 6권 3책본과는 달리 16세기 인출본에는 권1의 내용 중 上監司沈公書, 白雲洞紹修書院記 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원본열람이 어려워 복사본으로 확인한 결과 이기는 하나 위의 내용만을 일부러 빠트리거나 훼손시킨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上監司沈公書, 白雲洞紹修書院記 가 수록된 20세기 인출본의 판식도 16세기의 형식을 띠고 있으므로 초기 간행직후에 추가로 판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30) 이 인물에 대한 신상을 확인함에 있어 순흥안씨의 후손으로 영주 순흥면 읍내리에 거주하는 安垺 선생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오랫동안 소수서원과 순흥안씨 집안을 연구해온 안정 선생의 견해에 따르면 順興安氏族譜-庚申譜-(1980년간행)에 안홍업은 1510-1561년, 1592년-1653년간 생존한 두인물이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안향의 직계 후손으로 1510-1561년간 생존한 인물일 것으로 확인된다. 도움을 주신 안정선생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그림 1> 고려대 만송문고본의 권말

5권 1책본은 1909년경에 인출된 것으로 주희와 안향의 遺像이 있는 책이다. 전체 5권으로 이루어졌으며 卷1은 尊賢錄, 卷2-3은 竹溪誌尊賢錄, 卷4-5는 竹溪誌의 권수제를 쓰고 있고 표지서명을 「竹溪誌尊賢錄」으로 쓴 것도 있다. 권1의 尊賢錄 끝에 隆熙三年己酉(1909)에 安鍾晷이 쓴 발문이 있어서 인출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 책은 5권 1책이지만 제5권의 권말 권차가 권3으로 끝나고 있어서 3권 1책으로 서지기술된 경우도 있다.

목활자본은 모두 3권 1책본으로 2종이 전해지는데 판심이 上下內向二葉花紋黑魚尾이고 1894년 安昞烈의 발문이

있는 간본과 上下內向三葉花紋黑魚尾이고 周世鵬의 발문만 있는 간본이 전해진다.

<표 1>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체제는 큰 차이가 없지만 三葉花紋黑魚尾의 간본이 二葉花紋黑魚尾의 간본에 비해서 몇 가지(존현록, 장서록, 잡록의 일부) 항목이 더 많다. 또한 二葉花紋黑魚尾의 간본에는 간행에 참여했던 有司錄이 권말에 있으며 이는 「晦軒先生實記」의 간행시 참여했던 인물의 명단임을 알 수 있다. 이 二葉花紋黑魚尾의 간본이 「晦軒先生實記」의 부록으로 간행된 것임은 앞서 언급한 대로이다.³¹⁾

31)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883년에 성균관 유생들에 의해 제3차의 태학본실기가 완성되는데 「安子年譜」의 내용중에 “가을에 태학 유생 林毓壽, 姜永典, 申錫九, 俞致晟 등이 本孫 明烈 등과 實記를 중간하여 별읍의 교궁에 배포하였다.”(「安子年譜」別本 卷二, 太學本實記成)고 하였다. 바로 二葉花紋黑魚尾의 간본의 권말 有司錄에 이들의 명단이 실려있으며 竹溪誌跋을 쓴 安昞烈은 掌財有司로 참여하고 있다.

<표 3> 판심형태에 의한 刊本の 날장별 구분

| 판심 | 해당 장 | | |
|----------------|------|---|--|
| 大黒口 上下内向黒魚尾 | 序 | 1,2,3,4 | |
| | 卷1 | 行錄 | 2,3,5,6,7,8,9,10,11,13,14,15,16,17,18,19,20,21,22,23,25,26,28,29,30,31,32,33,35,36,37,38 |
| | | 行錄後 | 1,2,5,7,13,14,16,17, (20,21은 無魚尾) |
| | | 上書 | |
| | 卷2 | 記 | 1,2,3,5,6,7,10 (4,8,9는 無魚尾) |
| | | 尊賢錄 | 1,2,7,8,10,11,12,16,17,18,19,20,22,23,24 |
| | | 尊賢錄後 | 1,2,3,4,5,6,8,9 |
| | 卷3 | | 1,2,3,4,5,6,7,8 |
| | 卷4 | | 3,5,6,7 |
| | 卷5 | 雜錄 | 2,7,8,9,10,11,14,17,19,21,22,23,24,25,26,27 (31~34는 無魚尾) |
| | | 雜錄後 | 1,2,4,5,6,7,8,9,10,11,12,13 |
| 卷6 | | 1,2,4,6,7,8,9,10,11,12,13,14,15,16,18,19,24,25,26,28,29 | |
| 上下内向有紋黒魚尾 | 廟記 | 1,2 | |
| | 卷1 | 行錄 | 1,4,12,24,27,39,40,41 |
| | | 行錄後 | 8,9,10,11,12,18,19 |
| | | 上書 | |
| | 卷2 | 記 | 1,2 |
| | | 尊賢錄 | 3,4,5,6,14,15 |
| | | 尊賢錄後 | |
| | 卷3 | | 9 |
| | 卷4 | | 1,2,8 |
| | 卷5 | 雜錄 | 4,13,15,20,28,29 |
| | | 雜錄後 | 3 |
| 卷6 | | 3,5,17,20,21,27 | |
| 上下内向二葉花紋黒魚尾 | 序 | 5,6 | |
| | 卷1 | 行錄 | 3,4 |
| | | 行錄後 | 3,4,6,15 |
| | | 上書 | |
| | 卷2 | 尊賢錄 | 9,13,21 |
| | | 尊賢錄後 | 7 |
| | 卷3 | | |
| | 卷4 | | 4 |
| | 卷5 | 雜錄 | 1,3,5,6,12,18,30,35,36 |
| | | 雜錄後 | |
| | 卷6 | | 23 / 識跋 1,2 |
| 上下内向黒魚尾 | 卷1 | 行錄 | |
| | | 行錄後 | |
| | | 上書 | 1,2,(3),4,5,6 |
| | 卷2 | 記 | |
| | | 尊賢錄 | |
| | | 尊賢錄後 | |
| | 卷3 | | |
| | 卷4 | | |
| | 卷5 | 雜錄 | 16 |
| | | 雜錄後 | |
| | 卷6 | | 22 |

3.2 「竹溪志」의 藏書錄

주세붕은 백운동서원을 건립하면서 주자의 백록동서원을 모범으로 삼아 건물, 학전, 장서를 갖추었다. 그가 서원에 서적을 구비하고 학전을 마련한 내용은 牧使 安瑋와 承旨 安玟에게 보낸 서신과³²⁾ 실록에³³⁾ 기록되어 있다. 즉 옛 숙수사 터에다 서원을 건립할 때 땅을 판지 1자도 못되어 늦쇠 120여근을 발견하였고 이를 布 10동에 준하는 값으로 정하여 한성으로 보내 「四書三經」, 「程全書」, 「朱子大全」, 「大學衍義」, 「通鑑綱目」 및 儒道를 밝히는 기타서적을 구입하였다. 또 경서와 성리학서 몇 질을 인쇄하여 비치하고 유림이 기증하는 서적을 1권의 책에 기록하여 다시 2질을 楷書로 옮겨 1부는 비치하고 1부는 그 집에 부쳤다고 한다.

「竹溪志」의 藏書錄은 이와 같은 초기 백운동서원의 장서의 수집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기록하고 있다. 즉 「竹溪志」 권4의 말미에 白雲洞書院藏書 항목을 두고 서명과 책 수를 적은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끝에 “嘉靖甲辰歲藏書合錄五百卷”이라 하여 작성시기와 전체 책 수를 밝히고 있다. 이를 서울대 규장각 四部改修法의 분류방식에 따라 류별로 정리하여 보면 <표 4>와 같다.

모두 43종 503권으로 파악되는데(2건이 있는 책까지 포함하면 525책), 이 중에 단위를 部로 표시한 3종을 제외하면 모두 500권으로 “藏書合錄五百卷”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주제는 詩, 書, 易, 禮記, 春秋의 五經과 論語, 孟子, 大學, 中庸의 四書 등, 전통경서를 골고루 갖추었으며 성리철학서로 「性理大全」, 「朱子大全」, 「近思錄」, 「心經」, 「朱子語類」 등과 總集類로 문장의 수사와 관련된 「文選」, 「楚辭」, 「文章軌範」, 「儷語編錄」 등을 비치하였다. 또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서, 韓昌黎集, 「樊川集」 등의 別集類 서적과 類書類인 「博物志」 등 간략하지만 經·史·子·集에 걸쳐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장서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32) 「竹溪志」, 竹溪志安氏行錄後, 與安牧使瑋書, 附安承旨玟答書.

33) 「中宗實錄」卷95, 中宗36年 5月 丁未.

<표 4> 죽계지 장서록의 현황과 주제

| 區分 | 類別 | 書名 | 區分 | 類別 | 書名 | |
|----|-----|--|-----|--|---|-------------------|
| 經部 | 易類 | 周易大全 14卷 | 史部 | 編年類 | 通鑑 15卷 東國通鑑 29卷 宋鑑 16卷 | |
| | 書類 | 書大全 9卷 書謄吐 8卷 書大文 1卷 | | 傳記類 | 名臣言行錄 16卷 伊洛淵源錄 2卷 | |
| | 詩類 | 詩大全 9卷 詩大文 2卷 | 子部 | 儒家類 | 近思錄 2件 各 4卷 性理大全 36卷 朱子大全 70卷 自警編 7卷 眞西山心經 2卷 朱子語類 59卷 | |
| | 春秋類 | 春秋附錄大全 17卷 春秋胡傳大全 7卷 春秋胡傳小全 4卷 左傳大全 23卷 | | | 類書類 | 博物志 1卷 續博物志 1卷 |
| | 禮類 | 禮記大全 16卷 禮記唐板小全 10卷 周禮 7卷 | | | | 集部 |
| | 四書類 | 大學 1部 中庸 1部 中庸或問 1部 論語大全 2件 各 7卷 孟子大全 2件 各 7卷 孟子大文 2卷 大學衍義 12卷 | 別集類 | 韓昌黎集 16卷 柳子厚集 13卷 樊川集 4卷 完陵集 1卷 | | |
| | 小學類 | 小學 2件 各 4卷 韻府群玉 10卷 | 合計 | 43種 503 (500권+3부) 2건을 모두 합하면 523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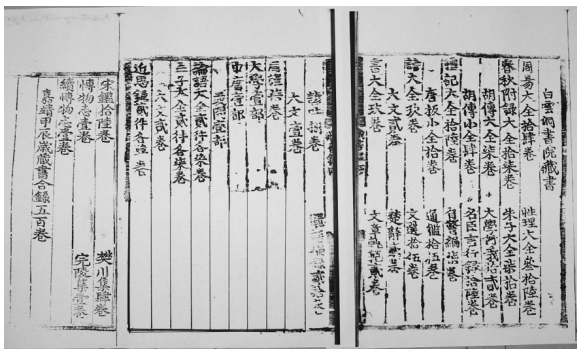
한편 이러한 장서록은 「竹溪志」의 판본에 따라 각기 다르게 기술되고 있어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은 현전하는 후쇄본 6권 3책본의 “藏書錄” 부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장서록의 일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좌측아래 「儷語編錄」 다음의 책판 일부가 떨어져 없기 때문이다.(떨어져 나간 부분의 계선과 변란은 후쇄할 때 새로 그려 넣었다) 이는 16세기 간본의 같은 장을 확인하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좌측아래에 「小學」, 「東國通鑑」, 「眞西山心經」, 「伊洛淵源錄」, 「朱子語類」, 「左傳大全」, 「韓昌黎集」, 「柳子厚集」의 서명과 책수가 판각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계선의 중간지점이 모두 끊어져 있어서 이미 훼손이³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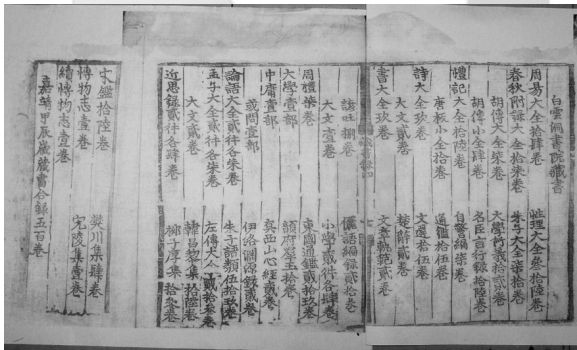
34) 서책의 내용을 문체삼아 일부러 훼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練板이 제대로 되지 않은 판목이 갈라져서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19세기 이후에 간행된 3권 1책본은 훼손된 판본의 일부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4>의 1884년 간본에서는 「儷語編錄」 다음에 「大學」, 「周禮」 등의 순서로 빠진 9종의 서책의 위치에 배열하였고 또 다른 목활자본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儷語編錄」 다음에 한 칸을 띄웠을 뿐 같은 방식으로 배열하였다. 이는 1909년의 목판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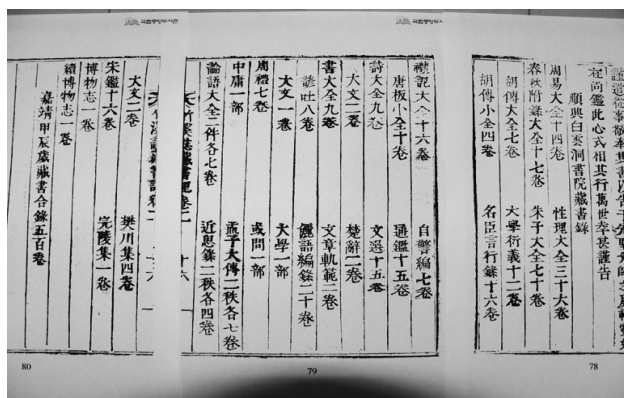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열한 결과 19세기 이후의 간본에는 백운동서원 초기부터 있었던 9종의 서책이 누락되었고 본래 「中庸或問」, 「孟子大文」이었던 서책이 「或問」, 「論語大文」으로 잘못 수록되고 말았다. 모두 훼손된 판본의 일부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시킨 결과이므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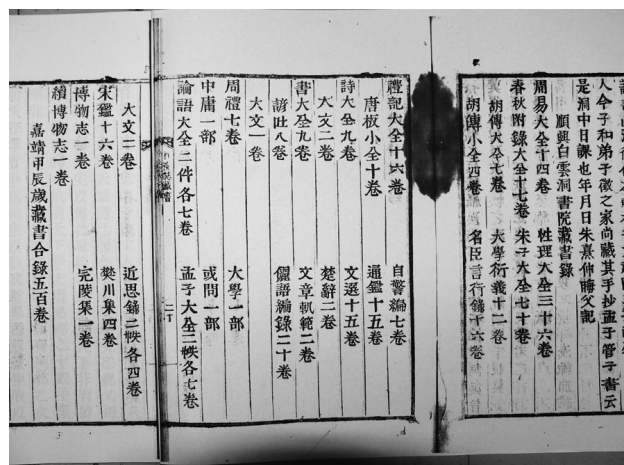
<그림 2> 6권 3책본 후쇄본의 白雲洞書院藏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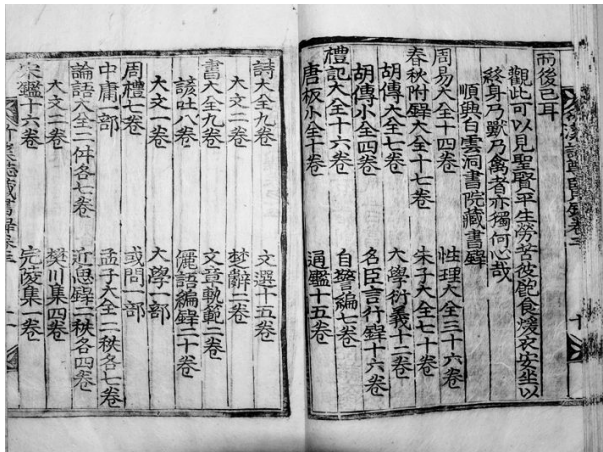
<그림 3> 16세기 간본의 白雲洞書院藏書



<그림 4> 이엽화문어미(1884년간) 목할자본의 順興白雲洞書院藏書錄



<그림 5> 삼엽화문어미 목할자본의 順興白雲洞書院藏書錄



<그림 6> 1909년 목판본의 順興白雲洞書院藏書錄

4. 결 언

이상과 같이 「竹溪志」의 현존본을 대상으로 편찬자와 간행시기, 체제, 판본별 특징 등을 살펴서 판본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시기와 판본이 다른 「竹溪志」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았다.

「竹溪志」는 한국최초의 서원지로서, 백운동서원의 창건과 배향된 인물의 전기자료로서, 최초의 서원도서관 장서기록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큰 자료이다.

「竹溪志」의 편찬시기는 1544년으로 알려져 있고 편찬이후에 곧바로 간행하였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명확한 간행기록이 없어 확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퇴계의 편지글, 「竹溪志」가 수록된 「攷事撮要」의 편찬시기, 16세기 간본의 장서기, 권말 간행관련인물기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편찬 이후 1554년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竹溪志」는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 현전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6권 3책 본과 3권 1책본, 5권 1책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간본의 형태를 띠고 있는 20세기 인출의 6권 3책본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면 핵심적인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위주로 편집되었으며 개인문집, 실기, 세고에 포함할 만한 성격을 지니는 글들이 대거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합적 성격을 지니는 「竹溪志」의 체제를 통해서 초기 우리나라 서원지의 성격과 함께 편찬자의 편찬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6권 3책본은 판각의 상태가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지러진 판이 많으며 각 장마다 판의 크기, 판심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려대 만송문고의 3책, 영남대 도서관의 1책, 서울대 규장각의 1책을 제외하고 대부분 후쇄본이며 군데군데 보각판이 새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판심분석에 의한 간행시기 추정으로 살펴볼 때 최초 간행이후로 최소한 3차례 이상의 보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竹溪志」에 실린 백운동서원장서록은 조사된 5종의 판본에 모두 실고 있지만 초기간본의 것과 차이가 있었다. 19-20세기 간본에는 백운동서원 초기부터 있었던 9종의 서책이 누락되었고 본래 「中庸或問」, 「孟子大文」이었던 서책이 「或問」, 「論語大文」으로 잘못 수록되었음을 밝혔다.

앞으로는 장서록에 수록된 개별 서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 연구를 통하여 「竹溪志」의 간행과 판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유사한 문헌에 대한 서지적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原典>

「明宗實錄」

「安子年譜」

- 「竹溪志」, 6卷3冊 木板本
「竹溪志」, 3卷1冊 木活字本, 1884 년간행
「竹溪志」, 3卷1冊 木活字本,
「竹溪志」, 5卷1冊 木板本
「中宗實錄」
「退溪先生文集」
「晦軒先生實記」

<단행본>

- 김병구, 「회헌 안향선생의 생애와 사적」, 부산, 경성대학교출판부, 1993.
영주시 편, 國譯 「竹溪志」, 영주: 영주시, 2002.
영주시 편, 國譯 「晦軒先生實記」, 영주: 영주시, 2002.
李樹煥, 「朝鮮後期 書院研究」, 서울: 一朝閣, 2001.
李春熙, 「李朝書院文庫考」, 서울, 國會圖書館, 1969.
丁淳睦,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 慶山: 嶺南大民族文化研究所, 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동연구원, 1992.

<논문>

- 姜周鎭, “書院과 그 社會的 機能”, 韓國史論 8 (1981)
길진숙, “주세붕의 竹溪志 편찬과 시가관-황준량과의 시가편입논쟁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사연구」 11 (1997. 7)
金致雨, 朝鮮朝 前期 地方刊本の 研究: 冊板目錄 소개의 傳存本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학원, 1999.6.
南權熙, “紹修書院所藏 古書 및 古文書 解題”, 「紹修書院所藏資料 調查報告書 3」, (영주: 소수서원, 1998)
尹熙勉, “白雲洞書院의 設立과 豊基士林”, 震檀學報 49 (1980).
尹熙勉,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歷史學報 186 (2005.6)
鄭萬祚, “朝鮮書院의 成立過程”, 韓國史論 8 (1981)

к с і